



소순무

고문 / 변호사

Email. smsoh@gaonlaw.com
Tel. 02-3446-5426
Fax. 02-3446-5700

소순무 고문은 20여년 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오다. 법무법인(유) 올촌을 거쳐 2022년 법무법인 가온에 합류하였습니다. 소 고문은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조세법 법학박사, 조세소송의 저술 등 조세전문 프로페셔널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가온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분야', Chambers AP, asialaw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 고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공익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그 공로로 2021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바 있습니다. 소 고문은 현재 한국후견협회 회장으로서는 후견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졸업 (1999)
독일 본(Bonn)대학 법관장기연수 (1990)
사법연수원 수료 (제10기, 1980)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74)

경력

법무법인 가온 고문 (2022~현재)
한국후견협회 회장 (2017~현재)
대한암연구재단 이사 (2008~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5~현재)

법무법인(유) 올촌 변호사 (2000~2022)
(사)온울 이사장 (2016~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2014)
한국세법학회 회장 (2010~2012)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07~2009)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2005~2009)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2005~2008)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04~2010)
KT&G 사외이사 (2002~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사 (2000~2005)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0~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0)
각급 법원 판사 (1982~199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0~1982)

업무분야 조세자문/쟁송, 세무조사 대응, 중재, 성년후견 등

수상/선정 '제58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2021)
 Tax 분야 Elite practitioner로 선정, Asialaw (2019~2020)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2019)
 Tax 분야 Senior Statesmen으로 선정, Chambers AP (2018)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2018)
 '제45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1)
 서울경제 발행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 조세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서울경제 (2009)
 조선일보 발행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조세분야 선정, 조선일보 (2007)

논문/저서 조세소송(개정 11판), 조세통람 (2022)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21세기북스 (2020)
 조세환급 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99)
 조세와 헌법재판, 헌법논총 제9집 (1998)
 조세법의 헌법적 조명, 재판자료 제76집 (1997)
 부동산 소송과 조세문제, 사법논집 제28집 (1997)
 조세신고납부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법논집 제26집 (1995)
 법인의 형사책임, 석사학위논문 (1977)